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4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1일(음력 5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와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은 본회의 개원 전인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입법 폭거’…“가톨릭 시의회로 전락”

서울시의회, 6월 24일 정례회서
종교편향특위 등 지속 반발에도
철회·폐기 조례안 2건 기습 상정
59명 중 47명·61명 중 48명 찬성
‘밥그릇 싸움’ 폄훼 의원도
보화 스님 “모니터링·法 대응”
종평위·시민연대, 규탄 잇따라

김내영 · 이현희 기자

‘정교분리 원칙 위배’와 ‘특정 종교 특혜’ 논란으로 철회·폐기됐던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이 서울시의회 정례회 폐막 직전 기습 상정돼 결국 가결됐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폐기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강행 처리하면서 “반대 여론을 무시한 입법적 폭거”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다. 서울시 조례안은 재석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7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은 재석의원 61명 가운데 찬성 48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이미 한 차례 철회·폐기됐던 안건이다. 앞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6월 22일 회의를 열고 6월 15일 의사과에서 철회된 서울시 조례안과 4월 20일 의장 방침으로 폐기된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을 특별위원회안으로 다시 채택해 본회의에 기습 상정했다.

특히 불교계는 본회의 직전까지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와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은 본회의 개원 전인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교계와 시민단체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안을 정례회 폐막 직전인 6월 22일 ‘특별위원회안’으로 기습 상정해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행태”라며 “해당 조례안 입법 강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적 권한을 오남용한 서울특별시의회에 있다”고 규탄했다.

하루 전날인 6월 23일에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도 서울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과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교계의 반발에도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이 진행된 뒤 두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됐다.

찬성토론에 나선 문성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특정 종교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제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문 부위원장은 세계청년대회를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비교하며 “교황은 단순 종교지도자가 아니다. 전례 없는 초대형 운집 행사를 코앞에 두고 법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의 문제 제기를 ‘밥그릇 싸움’으로 규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문 부위원장은 “특정 불교계가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불교계의 예산을 빼앗거나 행정 지원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교계가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이유도 없다. 세계청년대회를 특정 종교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서울시가 가진 포용력을 스스로 폄하하는 이중잣대”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보화 스님은 즉각 문성호 부위원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서울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보화 스님은 “세계청년대회를 새만금 잼버리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은 문화와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라며 “오늘 서울시의회는 천만 시민의 의회가 아니라 ‘가톨릭 시의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편향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조례의 시행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님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도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기습 가결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종평위는 “조례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할 것”이라며 “서울 시민들과 함께 향후 집행될 예산과 행정 지원의 위법성 및 형평성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불교·원불교·개신교·천도교·천주교 및 범종교 학술·시민단체 26곳으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6월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의 요구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및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비구니 원로 19명 추대
의장에 본각 스님 선출

전국비구니회, 6월 22일 추대식
“비구니승가 올바로 서는 계기”



한국 비구니 전통과 위상을 대표하는 원로 스님 19명이 제3대 비구니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원로의장에는 본각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6월 22일 서울 법룡사 만불전에서 ‘제21차 임시총회 및 제3대 원로회의 의원 추대식’을 봉행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기존 4명 육문(군위 법주사)·묘순(서울 삼선포교원)·성일(화성 신흥사)·영운(울산 석남사) 스님을 비롯해 수현(울산 반야선원)·능인(의정부 석림사)·진성(부산 회명사)·혜원(세종 신광사)·지연(서울 기원사)·효성(서울 수월암)·도혜(수원 봉녕사)·대우(괴산 남화사)·정우(부산 반야사)·화정(평택 명법사)·계호(서울 진관사)·본각(고양 금륜사)·상덕(서울 미타사정수암)·일진(청도 운문사)·성본(논산 법계사) 스님 등 15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해 최대 10년이다.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4월 원로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추대할 원로의원 자격심사요건을 점검한 후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5월 제2차 회의를 통해 자격심사를 실사해 기존 4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추대 원로의원을 확정했다.

신임 원로의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승가, 비구니회, 원로,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원로의원 스님, 비구니회 소임자 스님과 서로 상의하면서 한국의 비구니회가 세계에 우뚝 서고 안으로 수행정진하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대식 후에는 후원금 전달도 진행됐다. 원로의원 효성 스님과 지연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각 1000만원을, 도혜 스님과 일진 스님이 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또 정각사 정목 스님과 사찰음식연구소 지견 스님이 회원장 후원금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자연·문화유산 통합 관리 기대”

‘자연공원법’ 개정 환영 논평

조계종 총무원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자연공원 관리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6월 22일 총무원 사회부장 진성 스님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중심의 기존 보존 체계를 넘어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원자원의 개념이 문화경관까지 확대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교육·해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자연공원이 국민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체험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올해 4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이 확대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제시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전국 8만7000여 ha에 이르는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승려복지 및 아미타불교요양병원 후원 동참 안내

무량공덕 쌓는 승보공양
우리 종단은 스님이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가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는 출가 수행자의 교육·의료·주거·소득·장례 등 완전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가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사찰,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의 승보공양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를 공양하면 그 복이 무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원금 지원 내용

스님 복지비 지원	아미타불교요양병원 지원
- 진료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진료비 지원 - 병원 운영 및 개선비 지원 - 제2병동 건립 * 재가불자 이용 가능

후원 동참 방법
• CMS 자동이체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전송 (사찰 종무소 비치,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전화 신청 : 02-2011-1981, 1982 / 010-2926-1726(토,일 휴무)
• ARS 전화 후원 : 060-700-1077(1통화 5,000원)
• 계좌이체 후원
- 승보공양 : 농협 301-0324-8575-91 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회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농협 317-0027-0531-51 의료법인대한불교조계종승려복지

문의
• 승려복지회 : 02-2011-1981 / 010-2926-1726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아미타불교요양병원 : 02-2011-1982 / 031-677-2613 1752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139

※ 승보공양 후원 시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연말소득공제 및 기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로서
위의를 잃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자비를 펼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은 승보공양 후원에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